

일상 속 예술로 관계를 잇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계를 다시 엮는 생활밀착형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동구문화관광재단, '가가호호' 2년 연속 선정 가족·부부·청년 등 생애주기별 5개 프로그램



지난해 가가호호 일환으로 진행된 유아 가족대상 '까르륵 마을, 거드랑이와 벌바닥' 교육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 '가가호호(家加好)'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가가호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예술교육가와 주민을 연결해 일상 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지난해 해당 사업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 2개년 차 수행기관으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1차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 범위를 확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광주 동구의 인구 구조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구성됐다. 동구는 전체 가구 중 약 40% 이상이 1인 가구로 광주 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 인구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간 소통과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 부모, 아동, 청년 1인 가구 등 다양한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상 속 의·식·주를 기반으로 개인의 삶을 예술로 확장하고, 이를 가족과 지역사회로 연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집 이야기 박물관'은 3세대 가족이 참여해 가족의 기억과 삶을 기록하고 이를 예술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세대 간 이해와 정서적 유대 형성을 돕는다. '부부 아틀리에'는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공동 창작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동굴동굴 예술탐험대'는 초등 자녀를 둔 가족이 무등산, 충장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등 지역 문화자원을 탐방하며 예술적 경험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엄마아빠 마음 정원'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정서적 회복과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돕고, 공감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혼밥의 미학'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요리와 예술을 결합한 창작 활동을 통해 일상 속 자기표현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재단은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홍보형 기획행사 '동구가족 캠페인'을 5-6월 중 운영한다. '여행자의 집(ZIP)'을 거점으로 가족 참여 공연, 문화예술 워크숍, 참여형 캠페인, 버블쇼, 가족 미니올림픽, 돛자리 가족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창현 대표이사는 "2년 연속 선정은 공간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경험과 지역 맞춤형

기획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는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별 참여자 모집도 함께 진행된다.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동구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명진기자

국제레지던시 입주작가에 송유미·윤연우

지역 미술인 창작 활동 지원과 국제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광주시립미술관 '2026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입주작가가 선정됐다.



송유미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작가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송유미(회화), 윤연우(직조·회화)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초까지 진행된 공개 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윤연우

선정된 작가들은 4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중외공원 내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에 입주한다. 미술관은 이 기간 개별 창작실과 거주공간, 창작비를 지원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장작 과정을 공개하는 '오픈스튜디오' ▲전문가 피드백, 네트워킹 중심 비평·교류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이 있다.

/최명진기자



“한바탕 놀아보세!”

고전 틀 깨고 날아오른 '홍길동'

ACC서 열린 국립극장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 리뷰

고전 속 '홍길동'이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현재형 서사'로 재구성돼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선보이는 국립극장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는 익숙한 고전 서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관객의 반응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눈길을 끈다. 특히 광주 출신 배우 이소연, 김윤희가 '여성 홍길동'으로 등장해 기존 캐릭터를 새롭게 확장했다.

공연은 시작부터 강렬했다. 약 5m 상공에서 와이어에 매달려 등장하는 홍길동은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지난 7일 오후 진행된 리허설에서 이같은 장면은 실제 공연과 같은 수준으로 구현되며 현

장감을 더했다.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관객 참여'다. 공연 초반부터 배우들은 "쾌지나칭칭나네"와 같은 구호를 유도하며 대창과 박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배우가 객석으로 내려와 관객을 무대로 불러내거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며 장면을 만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연희자의 말과 행동은 객석의 호응에 따라 달라지며, 공연은 매 회차 다른 결을 갖게 된다.

서사는 기본적으로 '홍길동전'의 흐름을 따른다. 서자로 태어난 설음, 활빈당의 결성, 탐관오리 응징 등 익숙한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대사와 안무 곳곳에는 현대적 감각이 녹아 있다.



'홍길동이 온다' 리허설 공연 모습

무대 연출 역시 다층적이다. 전통 무술을 기반으로 한 아크로바틱과 케이팝 안무가 나오는가 하면, 50여명의 출연진이 노래와 연기, 움직임으로 장면을 밀고 있게 채웠다.

김성녀 국립극장 연희감독은 "광주는 공연에 대한 안목이 높은 도시로 이번 무대가 하나의 시화대가 될 것"이라며 "마당놀이는 객석의 호응에 따라 대사와 장면이 달라지는 '살아있는 연극'인 만큼, 관객과 함께할 때 무대가 더

욱 풍성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은 국립극장에서 지난해 제작된 작품으로, 누적 관객 2만6천여명을 기록하며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국립중앙극장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ACC재단이 함께 추진했으며 우수 전통공연의 지역 확산을 목표로 한다.

공연은 오는 11일까지 ACC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서 진행된다. /글·사진·최명진기자

야구에 담긴 삶의 역전

놀이패 신명, 마당악극 '타이거즈' 오는 10-11일 북구문화센터 무대

호남의 정체성과 기억을 품은 '야구'를 무대 위로 끌어낸 마당악극이 관객을 찾는다.

놀이패 신명(대표 정찬일)은 오는 10-11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46회 정기공연 '명랑운동마당악극_타이거즈'를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호남을 대표하는 프로야구단 '타이거즈'를 배경으로,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세 인물이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과정을 그린다. 막창집 사장 '이순돌', 2군 투수 '안종범', 치어리더 '노수지'가 중심 인물로 등장하며, 세 사람은 야구를 매개로 서로 얽힌 사연을 풀어낸다.

공연에는 일제강점기 항일의지, 1980년 광주의 진상규명 과정 속 야구가 전한 위로와 감동, 5월18일마다 타 지역 원정경기를 떠나야 했던 기억 등 지역 서사가 함께 담긴다. /최명진기자

CBS 라디오

아침 시사의 새로운 중심

박성태의 뉴스쇼

월~금 07:10~09:00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